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8월 17일 (제75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지난주일, 내 둘째아들이 대학청년수련회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다. 내 아들이라 보여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다. 내 둘째아들은 내게 있어 애물단지였다. 아들과 나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그는 내 종이다!”라는 음성을 3번이나 듣고 목사가 되라는 내 말에 아들의 행동이 더욱 거칠어지더니 급기야 아버지인 나를 들어 던지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집안에서 난동을 부릴 때도,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나는 기도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좋은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20년! 그 기도의 독이 찾아보다. 내 아들이 변했다. 그 망나니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내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몇 년 전, 내가 꿈을 꾸니 우리 집에 망아지 하나가 들어와 온 집을 부수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망아지 목에 있는 줄을 잡았는데, 얼마나 날뛰는지 내 손이 갈라져 피가 철철 흘렀다. “놓으라”는 음성엔 잡았던 손을 뺐더니 그 망아지는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한참 뒤, 그 망아지가 암전히 집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 망아지를 자세히 보니 내 둘째아들이었다. 이것은 ‘내가 하려 말고, 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사인이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을 찡고 있는가? 기도하라. 나를 보고 위안을 삼고 용기를 내어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예수가 심겨진 아이로 양육합시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인천교회 유·초등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교회 유·초등부의 여름성경캠프가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진행되었다.

교육국 담임인 신봉 목사는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메시지로 여름성경학교의 시작을 선포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학원을 부지런히 다닙니다. 축구교실, 한자교실,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 심지어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연수까지 다니며 이루어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울교회 여름성경캠프를 찾은 이 시대 목사는 아이들에게 성령세례를 주었다. 어린 자녀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사는 길, 잘 사는 길은 성령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령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방언을 말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 18:16).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듯했다.

세상은 어지럽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구분할 수 없

통해 변화되고 믿음이 자랄 것을 생각하면 며칠 안되는 것쯤 괜찮다고.

그러나 아이들이라고 다 행복하지는 않다. 체구가 작아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 일하는 엄마가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와 주일이라도 엄마랑 같이 있겠다고 울고 불며 유·초등부예배에 안가겠다고 아이,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는 집을 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아이, 주의력결핍장애를 가진 아이...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만 심겨지면 그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



2014 여름성경캠프 (인천예수중심교회)

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캠프가 여러분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꼭 얻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를 정도로 훈육하다. 이런 시대를 헤쳐가야 할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들에게 진정 가르쳐야 할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짧은 여름성경캠프지만, 이 캠프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다지고, 말씀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이 여름성경캠프를 준비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은 거의 밤을 꼬박 샌다. 행여 어린 것들이 다칠까, 아플까, 집에 가고 싶다고 조를까 해서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챙기고 살피느라 눈 붙일 시간이 없다. 교사들은 말한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다고. 이 아이들이 이번 성경캠프를

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찬양을 할 때면 그 어떤 장난꾸러기 어린 아이라도 조그맣고 귀여운 입술을 움직이며 함께 찬양한다.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 평생 동안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번 캠프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심겨진 아이들이 미래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것이다.

곽신애 전도사



구원의 길, 신자의 길



기도하는 아이가 우리의 미래다



신나는 물놀이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6:13)



마음을 넓혀 통 큰 자가 되라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미워서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커피 잔에 소금 한 스푼을 타더니 건네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목사님이 마시라고 하니 그것을 마셨는데, 얼마나 짝지 않는 맛을 있는 대로 찜그리고는 못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번에는 1.5L짜리 생수 병에 똑같이 소금 한 스푼을 타더니 다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는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하면서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마실 만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넓은 집을 좋아합니다. 차도 넓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넓히려고, 큰 차 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제게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분은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분을 회상하고 그 분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누군가 자네를 밟고 일어섰다고 하면 그냥 밟혀주게나. 내가 밟혀서 그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이 목사가 살겠다고 다시 그를 밟는다면 그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는가.” 당시 가깝게 지내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그 일과 무관한 저를 모함하고 저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

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으나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자를 사람이 죽일 수 없다 하여 죽이지 않고 굴속에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삼상24). 또한 진중에서 사울이 자는 것을 보고 그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 가지고가서 건너편 산에 있는 호위장 아브넬에게 왕에 대한 호위가 허술하다고 오히려 나무랐습니다(삼상26:6~16). 대인배지요. 그런 통이 큰 자가 왕이 되어야 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소인배인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통이 큰 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서서 바로 꿈의 해몽을 해몽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대신까지 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 요

셉은 정사를 잘 살펴 애굽을 최대 국가로 키웠고, 이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 보복을 당하게 될까 걱정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45:7~8). 대개의 경우 형들에게 보복을 하려 했겠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을 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다 통이 큰 자들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자신에게 유산될 돈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

옵니다. 그는 돌아와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돌아온 것만도 고맙다.”며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15:29~30).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이 돌아왔으면 달려가 안고 기뻐해야 형이지요. 그러나 속이 좁으니 그런 겁니다. 그런 형이 또

있습니다. 다.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이 받으신 것을 시기하여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통이 큰 형이었다면 동생을 대견해하며, 깨닫고 자기로 진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이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데에는 요나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앗수르인들의 잔악무도한 행동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곧 원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도무지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한 요나를 용서치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가둬 회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통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해외집회를 간 곳은 일본입니다. 사실 저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었습

니다. 36년간의 일본의 만행과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지금 일본에 27개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통 큰 자가 되라는 직접적인 말

가득 차있는 컵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씀은 없습니다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5:39~42)고 하였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5:46)라고도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21)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1~13)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통이 큰 자가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요13:34). 사랑하면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이 큰 자가 되는 또 하나의 길은 내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릇은 비어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워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통 큰 자들이 됩시다. 통 큰 국가, 통 큰 목회, 통 큰 기업이 됩시다. 뻔뻔이 같은 자 말고, 태평양 같은 자가 되어 세상을 품읍시다.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는 모든 오물을 받아 소금으로 정화(淨化)시킨다

워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통 큰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는 바다 같이 넓은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통이 큰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나자 사울은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군대장관으로 삼았는데, 그의 지략을 보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삼상18:6~7). 그러자 사울이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면, 우리도 말할 것 없이 당연히 열심을 내야 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급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6~7).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평강의 왕으로 삼으시는 일을 열심을 내셔서 이루셨다는 것이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란다. ‘나도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의 술한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기적적인 일로, 때로는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뒤에서 남모르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다. 바로 그 열심이 오늘날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초석이 된 것이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우리 목사님의 열심 또한 2등 가라면 서러워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계획하면 밤잠을 안 주무신다. 혼신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하신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교단을 이룬 밑거름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야 한다(롬 12:7). 세상일에 열심을 품으면 세상일에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 일에 성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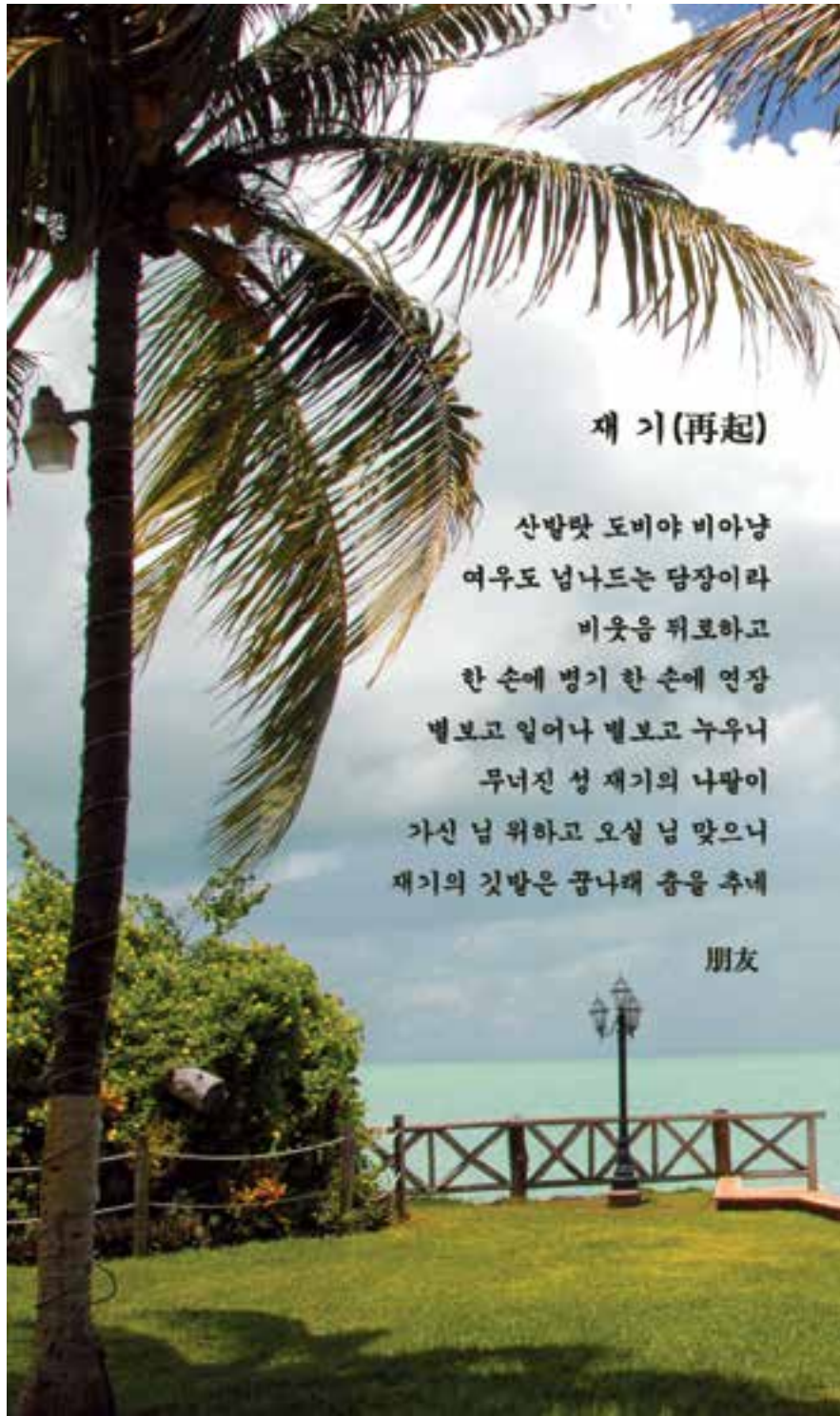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 열심을 품은 사람의 열정의 산물이다. 나라, 기업, 교회, 가정..., 모두가 누군가의 열심의 결과물들이다.

열심히 안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기대하지 말라. 어디든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다르다. 말이 다르고 몸가짐이 다르다.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러면 큰일도 열심히 한다.

열심을 내자.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9).

이시대 목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기가 종사오니...

마태복음 17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옷이 빛과 같이 희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한다. 그뿐이 아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고 계셨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니 이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직접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극적이고 황홀했으면 베드로는 여기가 종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였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영광스런 자리에 앉아 누릴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눅 9:31). 정작 자신들의 죄악 된 모습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실 고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수준 차이를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일과 육신의 일에 집중하다가 다 멸함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다.

우리는 ‘받은 복이나 헤아리며 베드로처럼 여기가 종사오니 하고 현재의 영광에 머물기를 원하지 말자. 지금 누리는 복일랑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족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 형클어진 실타래를 풀려면 묶어진 매듭을 잘라내야 한다. 이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마17:5)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나의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갈삼아 내 주변의 얽히고설킨 문제, 풀리지 않는 매듭을 과감히 째둑 째둑 잘라보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서연 전도사

ohzion1004@daum.net



귀를 기울이세요

두 살이 채 안 되어 아버지를 여의고,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별로 행복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네 살 때 홍역을 앓았고, 간호사의 실수로 눈 부위에 흉이 생겨 눈이 사시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거짓말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고 카드놀이를 즐겼으며, 어머니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대는가 하면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12살이 되면서 라틴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연설과 연극 연습을 하는 것을 계기로 ‘연젠’가 꼭 성직자가 되리라’는 꿈을 품게 됩니다. 아이는 성직자들이 읽는 기도서를 딱딱 읽는 습관이 생겼고, 그 습관은 아이가 18살 되던 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는 식비와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신 근로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부유층 자제들이 지내는 방을 청소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 영국의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도, 문제아였던 유년 시절도, 비참했던 청년 시절도, 꿈을 품은 사람의 위대한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처했던 환경들 가운데서 벌어진 소소한 일들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은 꿈은 무엇입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아소 목사와 통역관 김경숙 목사

진정 용기 있는 지식인이며, 참 하나님의 사람인 아소 목사와의 인터뷰입니다.

기자: 이번 한국방문이 처음이신가요? 한국의 인상은 어떠신지.

아소 목사: 세 번째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풍경이 너무 비슷해서 어릴 적 감상에 젖었습니다.

기자: 본래 치과의사였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목회 길을 가게 되었는지요?

아소 목사: 치과의사였을 때도 전도를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고, 초기에는 치과의사와 목회를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이 해결되면서 병원 일을 접고 본격적으로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특별히 인터넷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소 목사: 처음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경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방송을 해야겠구나 생각했고, 시도했습니다. 2006년도 즈음해서 스카이프(skype)가 보급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스카이프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과 일대일 대화가 가능한 앱(App)입니다. 지금도 이 스카이프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전도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후(Yahoo)에 보면 메신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50명까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대보다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니코니코 방송(모든 사람

이 생방송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인터넷 목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소 목사: 단점은 인터넷 댓글을 달 때,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과 나쁜 말을 마구 써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방송을 하는데, 그것을 본자들이 비웃고, 재미난 것인 양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얼굴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점차 이런저런 이야기로 가슴을 열면서 가까워지고, 전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의 단점은 그 사람이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연락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자살하겠다고 올리고는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요.

장점은 일본교회는 문지방이 높아서 혼자서 교회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해서 서너 명이 함께 교회에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인터넷교회는 클릭 한 번 하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대면하고 전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은 그러지 않아서 좋습니다. 물론 댓글로 핍박을 받지만, 대면하고 받는 박해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목회를 하면 하루에 몇 명밖에 만날 수 없지만, 인터넷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목회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화상으로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기자: 방한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소 목사: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작년 여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올 6월에 이초석 목사님이 동경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때 이초석 목사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초석 목사님이 저를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마음에 원이었던 위안부 소녀상 앞에 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기자: 그 방송으로 인해 많은 질타가 쏟아질 텐데요.

아소 목사: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한일 간의 감정이 최고조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소 목사: 집회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 이것이 생방송으로 나갔지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8일 오후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품을 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일본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유독 일본인들에게만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없으면 그들은 절대 그것을 보

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방송으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래, 우리 일본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고 일본이 회개하는 날을 기다려주십시오. 일본 전체가 두손 들고 회개하며 사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기자: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보시니 어떻습니까?

아소 목사: 너무 놀랐습니다. 이초석 목사님과 저는 동갑이고, 생일도 이틀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이를 빠릅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안아주시니 힘이 솟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의 목회를 아무도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저를 평가해주시고 격려해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소 목사: 김경숙 목사와 함께 전도에 힘을 계획합니다. 벌써 김경숙 목사의 설교를 방송했습니다. 김경숙 목사가 한국 여성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 여자 분들은 겁이 나서 아무도 이 일에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경숙 목사는 용기가 있습니다. 잘 해낼 것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죠.

아소 목사: 정말 환대해주셔서 감동받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받았습니다. 일본교회는 영적으로 속박이 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서툴고 미비합니다. 그런데 한국성도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자유로운 것을 느낍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스트레스,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아! 스트레스 쌓여.”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스트레스라는 말을 쓴다. 우리의 생활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자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반응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1950년대 말 심장병 전문의인 프리드먼과 로즈먼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연구했다. 그들은 관상동맥질환을 앓는 환자를 관찰한 결과 상

당수가 특징적인 행동양식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조급하고 경쟁심이나 사회적 야심 같은 투쟁적 태도를 보였으며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학적 특징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성격을 A유형이라 규정했다. 이에 근거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3,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8년 반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행동이 급하지 않고, 우호적이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B유형의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A유형의 사람에게서 관상동맥질환이 2배나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을 유발하는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에

서는 쉽게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고 자기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떨쳐버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수동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는 성격을 C유형이라 규정하고 연구했다. C유형에 속하는 백 명의 표본 집단을 상대로 하여 스트레스와 암 발병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10년 후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은 50명은 암이 발병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한 50명 중에서는 무려 15명이나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지배하면서

각종 병을 일으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 삶에 활력도 자극도 없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기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의 문제는 스스로에게 남겨진 숙제다.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나만의 취미생활을 갖거나 지칠 때마다 기대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만드자.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자.

Dr. 조희정

pearl9230@naver.com